



발간년월 2020년 7월(제21호) 발행처 (재)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 주 소 (25798) 강원도 동해시 공단1로 177 자유무역지역관리원 3층  
자료문의 (재)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 물류연구기획팀 담 당 물류연구기획팀장 총 괄 이사장 Tel 033-522-6503 Fax 033-522-6505



## NLRSC

Monthly Newsletter vol. 21

목호항

## Contents

### | 항만·물류 정책동향

- ▷ 코로나19 피해 수산업계 지원, 해수부 제3차 추경 784억원 확정
- ▷ 컨테이너 화물 운임공표제 개정
- ▷ 국내 5대 항만 황산화물 배출규제 9월 1일 시행

### | 항만·물류 통계

- ▷ 2020년 국내 수출입 현황(6월)
- ▷ 2020년 동해·목호항 품목별 화물처리 실적(5월)
- ▷ 2020년 동해·목호항 선박 입출항 선종별 추이(5월)
- ▷ 2020년 동해·목호항 선박 입출항 국가별 추이(5월)
- ▷ 2020년 1월~6월 러시아 항만물동량

### | 주변국 국제동향

- ▷ 러시아 주요 동향
- ▷ 일본 주요 동향

### | 용어사전

- ▷ 선박의 종류

# 항만 · 물류 정책 동향

## | 코로나19 피해 수산 업계 지원, 친환경 관공선 도입 등 해수부 제3차 추경 784억 원 확정<sup>1)</sup>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코로나 19 로 피해를 입고 있는 수산 업계 지원과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추진 중인 ‘2020 년도 제 3 차 추가 경정예산안 (이하 추경)’ 이 784억 원으로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정부안 778억 원보다 6억 원 증가한 금액이다.

### 1. 수산물 소비촉진 및 수출 지원 : 261억 원

해양수산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코로나19 로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산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수산물 소비 촉진과 수출 활성화 지원을 추진한다.

먼저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전통시장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20% 할인 쿠폰 발급 등을 지원(210억 원)한다. 주요 할인대상 품목으로는 출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수면 양식 어종과 여름철 고수온·적조로 조기출하 지원이 필요한 어종, 추석 명절 기간 동안 수요가 높은 제수용품 등을 선정 할 계획이며, 1인당 최대 1만원 한도에서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코로나19 로 인해 위축된 수산물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국, 일본, 베트남, 태국 등 주요 수출국을 대상으로 비대면 유통망을 활용하여 우리 수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판촉비용 등을 지원(51억 원)한다. 8월부터는 국내 수산물 수출업체 100여 곳의 다양한 제품들이 해외 온라인 전자상거래 누리집과 홈쇼핑 방송 등을 통해 판매될 계획 이다. 해외에서도 코로나 19 의 영향으로 전자상거래 시장이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을 통해 우리 수출업체들이 100만 달러 이상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 2. 그린 뉴딜을 위한 친환경 선박 등 본격 도입 : 91억 원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 중인 환경 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발맞춰 핵심 그린 뉴딜<sup>2)</sup> 사업의 일환으로 친환경 관공선 도입을 본격 추진 한다. 이 번 추경에는 어업지도선 2척, 순찰선 2척, 수산자원조사선 2척 등 총 6척의 설계비 31억 원이 반영되었다.

추경에 반영된 관공선 6척 모두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 선박으로 도입될 예정이며, 해양수산부는 7월 중 선박 설계 공고를 완료하고 전 문가 자문 등을 거쳐 최적의 설계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기존 경유 연료 사용 선박을 하이브리드 선박으로 교체할 경우, 미세먼지, 온실가스 등 대기오염 물질 발생이 약 30% 가량 감축되고 지역 중소조선업계의 수주 난을 해소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 할 것으로 기대 된다.

또한, 친환경 관공선 도입과 별도로 원양어선 안전 확보를 위한 원양 어선 안전펀드 예산도 60억 원 규모로 추가 편성되어 노후 원양어선 2척의 추가 대체건조도 추진할 예정이다.

1) <http://www.mof.go.kr/article/view.do?articleKey=32933&boardKey=10&menuKey=971&currentPageNo=1>

2) 환경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지속가능한 발전

### 3. 재해 예방을 위한 항만 SOC 투자 확대 : 382억 원

태풍 등 재해로부터 안전한 항만을 조성하기 위한 사회간접 자본 분야 예산도 382억 원이 반영되었다. 이번에 편성된 사업<sup>3)</sup>은 주요 항만지역 중 노후화된 기반시설을 개선하거나 방파제 보강 등을 통해 항만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들이다.

항만 사회간접자본 추가 투자를 통해 항만 운영에 반드시 필요 한 정온수역 확보와 침수방지시설의 조기 구축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항만의 경쟁력 강화,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4. 어촌 관광 활성화 : 6억 원

코로나19 로 어려움<sup>4)</sup>을 겪고 있는 어촌체험휴양마을이 다시 활성화 되도록 지원하는 예산 6억 원이 국회에서 증액 반영되었다. 이는 어촌체험휴양마을의 갯벌체험, 선상낚시, 숙박 등의 관광 상품을 이용 하는 국민에게 30% 할인혜택(최대 3만 원)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어촌의 일자리와 소득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에도, 선박도면의 비대면 검사 체계와 해양수산정보의 공동 활용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예산 34억 원, 13개 무역항에 설치된 오염물질저장시설의 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 10억 원이 반영되었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추경에 반영된 사업을 통해 코로나19 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양수산 업계에 대한 지원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집행 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 | 컨테이너 화물 운임공표제 개정<sup>5)</sup>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컨테이너 해상화물 운송시장에서 화주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운임 덤핑 등 불공정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외항운송사업자의 운임 및 요금의 공표 등에 관한 규정(이하 운임 공표제)을 개정하고 7월 1일(수)부터 시행한다.

컨테이너 화물의 운임공표제는 1999년 도입되었으나, 해운기업이 공표하는 운임 종류와 공표 횟수가 적어 그간 화주기업에게 운임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못했다. 또한, 전체 운임이 해운기업 간 선박운항 비용에도 미치지 못하는 운임 덤핑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도 있어왔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는 내용으로 올해 2월 21일 해운법을 개정하였고, 이에 따라 운임공표제를 개선하여 시행한다.

그동안은 국내외 외항 정기화물운송사업자가 주요 130개 항로에 대해 항로별로 컨테이너 종류와 크기에 따른 운임 4종과 요금 3종을 연 2회 공표하였으나, 앞으로는 모든 항로에 대해 항로별로 컨테이너 종류와

3) ① 울산 신항 남방파제 등 축조 (240억 원), ② 침수 예방을 위한 광양항 배수로 정비 (20억 원), ③ 부산 감천항 태풍피해 조기 복구 (77억 원), ④ 부산항 오륙도 방파제 보강 (45억 원)

4) 어촌관광 체험객 수 증감 (최근 3년 평균 대비 ' 20 년 월별) : (2월) 42.9% ↓, (3월) 68.3% ↓, (4월) 42.3% ↓

5) <http://www.mof.go.kr/article/view.do?menuKey=971&boardKey=10&articleKey=32836>

크기, 환적 여부, 소유 등에 따른 운임 288종과 요금 8종을 연 4회 공표<sup>6)</sup> 하게 된다.

또한, 운임덤핑을 방지하기 위해 과당경쟁을 유발하는 비합리적인 운임과 요금에 대해서는 선사로부터 산출자료를 제출받아 필요 시 조정, 변경을 명령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을 부과하여 해운시장의 운송 거래질서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공표가 유예된 항목도 있다. ‘수입화물’은 해외에서 계약이 체결되고 운임이 정해져 공표 운임 준수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렵고, 선사의 국적에 따라 차별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공표가 유예된다. 또한, ‘재활용품(헌옷, 폐지, 고철, 플라스틱, 가죽 스크랩)’은 화물의 무게에 비해 가치가 낮아 운송시장에서 운임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선사가 운임을 공표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화주기업에 비용부담이 전가되는 문제가 있어 공표가 유예된다.

운임공표제는 향후 3년까지 제도의 타당성을 검토<sup>7)</sup> 하여 개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해양수산부는 제도를 시행하면서 지속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보완하여 실효성 있는 제도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외항선사나 화주가 해운법에 따른 금지행위<sup>8)</sup>를 위반한 사실을 인지할 경우, 누구든지 한국해양진흥공사와 한국선주협회에 설치된 ‘해운거래 불공정 신고센터’<sup>9)</sup>에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해양수산부는 피신고인 등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선사와 화주의 사업장 등을 방문 조사하여 위법사실 등이 확인되면 법에 따라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

김준석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개선된 운임공표제는 올해 2월 해운법 개정과 함께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업계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충분한 사전 설명 등의 과정을 거치기 위해 7월부터 시행하게 되었다.”라며, “이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해상운송 서비스가 정착되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해운기업과 화주기업 모두 상생 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6) 공표되는 운임은 <http://new.portmis.go.kr> (통합 포트미스)에서 확인할 수 있음

7) 해운법에 따른 운임공표제도 자체의 존속기한은 없으나, 모든 고시는 매 3년 마다 제도의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되어 있음,

8) <외항선사, 화주의 금지행위 등 신고대상 행위>

○(선사의 위반행위) 운임 미공표(과태료 1백만 원), 운임 미준수, 운임 리베이트 제공, 부당한 차별, 운송계약 불이행 등 (벌금 1천만 원)

○(화주의 위반행위) 공표, 신고 운임 미준수, 운임 등 리베이트, 부당한 입찰 유인, 강제, 입찰 시 다른 선사의 입찰단가 노출, 운송계약 불이행 등(벌금 1천만 원)

9) (신고센터) 한국해양진흥공사, 한국선주협회 홈페이지 및 전화(한국해양진흥공사 051-717-0662 한국선주협회 02-739-37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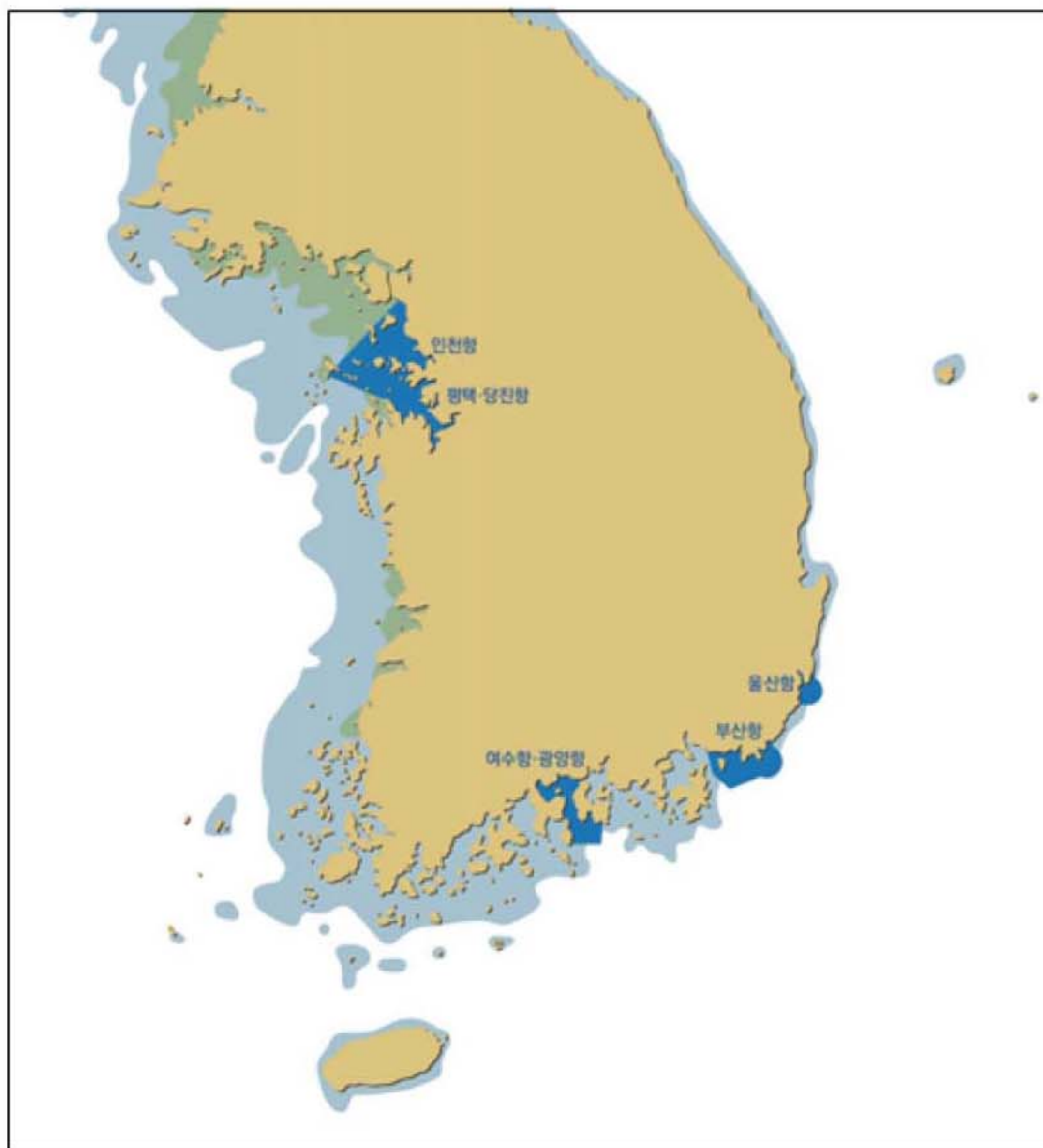
## | 국내 5대 항만 황산화물 배출규제 9월 1일 시행<sup>10)</sup> |

해양수산부는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지정 고시(2019년)’를 발령하였다.

이에 2020년 9월 1일부터 해양수산부는 인천항(경인항 포함), 평택·당진항, 여수·광양항(하동항 포함), 부산항, 울산항 등 전국의 5대 항만을 대상으로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으로 운영된다. 이는 해역 내 현재 연료유 황함유량 기준인 0.5% 보다 더 강화된 기준인 0.1%가 적용된다.

고시된 내용 가운데 배출규제 운용시점은 2020년 9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투묘 또는 계류 완료 1시간 후부터 양묘 또는 이안작업 시작 1시간 전까지로 정하였고 2022년 1월 1일 이후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에 들어온 때부터 나갈 때까지로 시점을 지정하였다.

###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위치]



10) 해양수산부 고시

# 항만 · 물류 통계

## | 2020년 국내 수출입 현황(6월) |

2020년 6월 국내 수출 392억 달러, 수입 355억 달러, 무역수지 37억 달러 흑자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수출은 10.9%(48.0억 달러 감소) 정도 감소하였고, 수입은 11.4%(45.6억 달러 감소) 정도 감소하였다.

[단위 : 백만 달러, %]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누계	
수출	2020	금액	43,260	41,262	46,906	36,923	34,856	39,213						242,420	
		증감률(a)	△6.3	4.5	△0.2	△24.3	△23.7	△10.9						△1.0	
	2019	금액	46,169	39,482	47,003	48,781	45,704	44,008	46,078	44,020	44,629	46,649	44,041	45,668	542,232
		증감률(b)	△6.2	△11.3	△8.4	△2.1	△9.8	△13.8	△11.1	△14.0	△11.9	△15.0	△14.5	△5.3	△10.4
수입	2020	금액	42,725	37,147	41,869	37,869	34,420	35,547						229,577	
		증감률(a)	△5.4	1.4	△0.3	△15.9	△21.1	△11.4						△1.6	
	2019	금액	45,153	36,651	41,992	45,047	43,620	40,105	43,762	42,457	38,741	41,397	40,729	43,687	503,341
		증감률(b)	△1.5	△12.2	△6.5	3.1	△1.9	△10.9	△2.6	△4.3	△5.6	△14.6	△13.0	△0.7	△6.0
무역수지	2020	금액	535	4,115	5,037	-946	463	3,666						12,870	
	2019	금액	1,016	2,830	5,011	3,734	2,084	3,904	2,316	1,563	5,888	5,252	3,312	1,981	38,891

주 1) 증감률은 지난해 같은 기간 수치임

주 2) 신고수리일 기준으로 연간 통계확정 시(2021년 3월)까지 일부 수치는 정정될 수 있음

주 3) 증감률(a), 증감률(a')는 전년(2019년) 동월대비

주 4) 증감률(b), 증감률(b')는 전년(2018년) 동월대비

출처 : 관세청

## | 2020년 동해·목호항 품목별 화물처리실적(5월) |

2020년 5월 동해·목호항 전년 대비 품목별 화물처리 실적은 전년 동월 대비 501,233톤(16.9%) 감소하였다. 시멘트, 모래, 무연탄, 유연탄, 기타광석 등이 감소하였으며 석유 정제품, 철강 및 그 제품 및 기타 화물은 증가 하였다.

[단위 : 톤]

구 분	합 계	어패류, 갑각류 등	시멘트	모래	무연탄	유연탄	철광석	기타광석 및 생산물	석유 정제품	화학공업 생산물	철강 및 그 제품	비철금속 및 그 제품	목재, 목탄 코르크 등	차량 및 그 부품	기타
2020년 5월	2,461,872	550	787,499	21,184	77,971	373,995	11,740	999,601	111,094	4,253	27,100	2,804	2,881	0	41,200
2019년 5월	2,963,105	1,041	968,549	48,361	165,900	515,500	19,846	1,159,194	43,132	4,276	150	12	0	5,347	31,797

주) 항만시설 이용신고(화물료 신고)가 완료된 정보로 생성된 통계임

출처 : 해양수산부 PORT MIS

## | 2020년 동해·묵호항 선박 입출항 선종별 추이 (5월) |

동해·묵호항의 2020년 5월 선박 입출항은 660척(4백만 톤)으로 전년 동월 대비 (척수)11.29% 감소, (톤수)10.72% 감소하였다.

(단위 : 톤(GT), %)

선박 종류	구분	2019년				2020년				전년대비 증감율 (%)			
		5월		누계(1월~5월)		5월		누계(1월~5월)		5월		누계(1월~5월)	
		척수	톤수	척수	톤수	척수	톤수	척수	톤수	척수(증감)	톤수(증감)	척수(증감)	톤수(증감)
합계	계	744	4,483,307	3,236	20,838,599	660	4,002,474	2,937	18,724,304	-11.29	-10.72	-9.24	-10.15
	국적선	610	2,655,830	2,464	11,434,684	512	2,352,021	2,168	8,139,266	-16.07	-11.44	-12.01	-8.25
	외국선	134	1,827,477	772	9,403,915	148	1,650,453	769	8,233,017	10.45	-9.69	-0.39	-12.45
일반화물선	계	168	1,401,980	784	7,012,559	116	1,114,340	611	5,351,489	-30.95	-20.52	-22.07	-23.69
	국적선	125	870,970	519	3,835,038	63	575,230	338	2,461,478	-49.60	-33.96	-34.87	-35.82
	외국선	43	531,010	265	3,177,521	53	539,110	273	2,890,011	23.26	1.53	3.02	-9.05
시멘트 운반선	계	112	623,571	542	2,999,757	91	528,983	414	2,337,685	-18.75	-15.17	-23.62	-22.07
	국적선	112	623,571	514	2,858,755	81	471,355	370	2,094,979	-27.68	-24.41	-28.02	-26.72
	외국선	0	0	28	141,002	10	57,628	44	242,706	0	0	57.14	72.13
석유정제품 운반선	계	64	35,676	418	238,937	109	90,279	528	393,402	70.31	153.05	26.32	64.55
	국적선	64	35,676	416	228,193	109	90,279	528	393,402	70.31	153.05	26.92	72.40
	외국선	0	0	2	10,744	0	0	0	0	0	0	0	0
산물선 (벌크선)	계	103	1,714,121	443	7,773,957	111	1,889,006	545	8,998,452	7.77	10.20	23.02	15.75
	국적선	66	654,345	274	2,737,536	80	873,797	376	4,122,565	21.21	33.54	37.23	50.59
	외국선	37	1,059,776	169	5,036,421	31	1,015,209	169	4,875,887	-16.22	-4.21	0.00	-3.19
어선	계	33	20,818	226	151,855	54	38,506	281	201,457	63.64	84.96	24.34	32.66
	국적선	0	0	0	0	0	0	0	0	0	0	0	0
	외국선	33	20,818	226	151,855	54	38,506	281	201,457	63.64	84.96	24.34	32.66
여객선	계	18	206,604	78	873,266	0	0	5	24,282	0	0	-93.59	-97.22
	국적선	0	0	2	938	0	0	3	1,326	0	0	50.0	41.36
	외국선	18	206,604	76	872,328	0	0	2	22,956	0	0	-97.37	-97.37
케미칼 운반선	계	12	25,838	54	112,892	2	9,938	14	56,050	-83.33	-61.54	-74.07	-50.35
	국적선	12	25,838	54	112,892	2	9,938	14	56,050	-83.33	-61.54	-74.07	-50.35
	외국선	0	0	0	0	0	0	0	0	0	0	0	0
냉동.냉장선	계	0	0	2	948	0	0	0	0	0	0	0	0
	국적선	0	0	0	0	0	0	0	0	0	0	0	0
	외국선	0	0	2	948	0	0	0	0	0	0	0	0
기타선	계	234	454,699	689	1,674,428	177	331,422	539	1,361,487	-24.36	-27.11	-21.77	-18.69
	국적선	231	445,430	685	1,661,332	177	331,422	539	1,361,487	-23.38	-25.60	-21.31	-18.05
	외국선	3	9,269	4	13,096	0	0	0	0	0	0	0	0

주) 선박 입출항 신고가 완료된 정보로 생성된 통계임

주) 톤수는 입출항 신고 시 산정되는 배의 톤수 기준임.

- 외항/내항 또는 국적선/외국선 에 따라 총톤수(GT) 또는 국제총톤수(GT) 로 적용되어 산출된 자료임

출처 : 해양수산부 PORT MIS

## | 선박 종류 <sup>11)</sup> |

여객선	산물선	원복운반선	시멘트 운반선	자동차 운반선
햇코일 운반선	냉동/냉장선	일반 화물선	풀컨테이너선	세민 컨테이너선
원유 운반선	석유정제품 운반선	케미칼 운반선	LPG, LNG 운반선	어선
기타선				

11) PORT MIS 통계 기준 선박

## | 2020년 동해·묵호항 선박 입출항 국가별 추이 (5월) |

2020년 5월 동해·묵호항 전년 동월 대비 선박 입출항 국가별 추이는 전체적으로 (척수)4.46% 증가, (톤수)9.79% 감소하였다. 국가별 순위는 러시아, 일본, 중국 순으로 나타났으며 러시아 선박의 증가가 전체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단위 : 톤(GT), %)

구분	2019년				2020년				전년대비 증감율 (%)			
	5월		누계(1월~5월)		5월		누계(1월~5월)		5월		누계(1월~5월)	
	척수	톤수	척수	톤수	척수	톤수	척수	톤수	척수(증감)	톤수(증감)	척수(증감)	톤수(증감)
합계	157	2,186,026	868	10,425,256	164	1,972,067	846	9,335,120	4.4	-9.7	-2.5	-10.4
러시아	67	778,872	353	2,998,160	77	575,127	372	2,065,414	14.9	-26.1	5.3	-31.1
일본	24	243,518	191	1,278,742	21	124,779	150	779,453	-12.5	-48.7	-21.4	-39.0
중국	21	339,586	88	1,492,760	25	426,029	95	1,574,297	19.0	25.4	7.9	5.4
대한민국	20	261,990	97	1,151,460	16	194,436	82	1,098,187	-20.0	-25.7	-15.4	-4.6
호주	3	120,813	25	856,474	7	265,592	27	934,673	133.3	119.8	8.0	9.1
미국	3	61,529	17	427,227	3	78,882	25	656,908	0	28.2	47.0	53.7
인도네시아	1	40,244	9	327,723	2	74,469	17	620,295	100.0	85.0	88.8	89.2
원앙어획지역	1	17,928	12	255,972	2	30,721	16	331,134	100.0	71.3	33.3	29.3
중화민국	1	6,200	9	84,064	4	24,850	13	132,026	300.0	300.8	44.4	57.0
홍콩	4	38,616	9	73,516	2	14,981	9	79,957	-50.0	-61.2	0	8.7
칠레	2	67,148	11	333,932	1	31,540	8	250,942	-50.0	-53.0	-27.2	-24.8
필리핀	2	64,041	8	252,579	1	31,541	6	162,874	-50.0	-50.7	-25.0	-35.5
베트남	1	17,634	5	49,260	0	0	5	44,616	0	0	0	-9.4
멕시코	1	17,634	3	63,874	1	25,189	4	103,777	0	42.8	33.3	62.4
남아프리카	2	55,465	6	172,003	0	0	4	127,649	0	0	-33.3	-25.7
캐나다	0	0	4	160,654	1	34,896	2	79,321	0	0	-50.0	-50.6
콜롬비아	0	0	0	0	1	39,035	2	78,070	0	0	0	0
말레이시아	2	11,281	4	61,832	0	0	2	59,011	0	0	-50.0	-4.5
페루	1	25,431	4	97,192	0	0	2	42,285	0	0	-50.0	-56.4
브라질	0	0	0	0	0	0	1	21,992	0	0	0	0
독일	0	0	0	0	0	0	1	9,530	0	0	0	0
북마리아나 제도	0	0	0	0	0	0	1	10,508	0	0	0	0
싱가포르	0	0	1	9,625	0	0	1	39,749	0	0	0	312.9
태국	1	18,096	2	36,558	0	0	1	32,452	0	0	-50.0	-11.2
방글라데시	0	0	1	20,236	0	0	0	0	0	0	0	0
벨기에	0	0	3	31,118	0	0	0	0	0	0	0	0
에리트레아	0	0	1	17,944	0	0	0	0	0	0	0	0
과테말라	0	0	1	36,403	0	0	0	0	0	0	0	0
뉴칼레도니아	0	0	1	34,164	0	0	0	0	0	0	0	0
파나마	0	0	2	68,742	0	0	0	0	0	0	0	0
시에라 리온	0	0	1	33,042	0	0	0	0	0	0	0	0

주) 선박 입출항 신고가 완료된 정보로 생성된 통계임  
 주) 톤수는 입출항 신고 시 산정되는 배의 톤수 기준임.  
 출처 : 해양수산부 PORT MIS



## | 2020년 1월~6월 러시아 항만물동량 0.1% 증가 |

### □ 2020년 1월~6월 러시아 항만물동량

ASOP 12) 언론보도실 발표에 따르면 2020년 1월~6월 러시아 항만 물동량은 전년 동월 대비 0.1% 증가한 410.4백만 톤으로 집계되었다. 건화물 및 액체화물의 물동량은 각각 185.7백만 톤(+2.8%), 224.7백만 톤(-2.1%)으로 나타났다.

### [2020년 1월~6월 러시아 항만물동량]

(단위 : 백만 톤, %)

구 분		항만물동량	증감률
건화물	석탄	86.0	-1.7
	컨테이너	28.5	+1.9
	곡물	17.5	+30.5
	광물질 비료	9.4	+6.1
	광석	6.1	1.6배
액체화물	원유	128.8	-6.8
	석유제품	75.8	+5.0
	액화가스	16.7	+1.6
	음료	2.6	+31.3

자료 : <http://portnews.ru/news/298720/>

### □ 2020년 1월~6월 러시아 수역별 항만물동량

수출화물 물동량은 324.1백만 톤(+0.8%), 수입 화물은 17.9백만 톤(-4.1%), 환적 화물은 32.2백만 톤(-0.6%)이며 연안 화물은 36.2백만 톤(-3.5%)으로 수출화물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감소하였다.

### [2020년 1월~6월 러시아 수역별 항만물동량]

(단위 : 백만 톤, %)

수역	건화물	액체화물	합계	증감률
북극	13.1(-12.2)	37.7(-8.1)	46.8	-9.3
발트해	54.1(-2.4)	73.9(-1.1)	127.9	-1.7
아조프흑해	48.0(14.7)	74.8(-3.5)	122.8	+2.9
카스피	1.8(34.6)	2.4(7.8)	4.2	+17.8
극동	68.7(2.4)	40.0(3.9)	108.7	+3.0

자료 : <http://portnews.ru/news/297255/>

### [러시아 수역 및 주요 항만]

수역별 항만 수	항만명
아조프흑해(17)	아조프, 예이스크, 로스토프 나 도누, 타간로그, 쟄류크, 카프카즈, 아나빠, 겔렌지, 노보로시스크, 소치, 따만, 두압세, 게르치, 세바스토폴, 페오도시야, 알타, 예브빠도리아
발트해(7)	비보르그, 비소츠크, 칼리닌그라드, 프리모르스크, 상트 페테르부르크(2), 우스찌 루가
카스피해(3)	아스트라한, 마하츠크라, 울랴
극동(22)	페트로파블롭스크 캄차트스키, 코르사코프, 마가단, 모스 깔보, 미스 라자레바, 니콜라옌스크 나 아무레, 아홉스크, 파라나이스크, 프리고로드노예, 알렉산드롭스크 사할린 스키, 바니노, 블라디보스톡, 보스토치니, 데카스트리, 자루비노, 나호드카, 네벨스크, 올가, 빠시웃, 소비엣스카야 가반, 홀므스크, 샤희쵸르스크
북극(20)	바란제이, 무르만스크, 나리얀 마르, 아르항겔스크, 비티노, 칸달락샤, 메젠, 아네가, 페벡, 암데르마, 딕손, 두진카, 사베타, 이가르카, 톱시, 하탄가, 아나디르, 베링곰스키, 프로비제니아, 에그베키노트



\* 파란색 : 주요 항만

12) 러시아 무역항 협회

# 주변국 국제동향

## | 러시아 주요 동향 |

### □ 2020년 동방경제포럼 취소 발표<sup>13)</sup>

RUS Congress<sup>14)</sup> 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행과 국경 폐쇄 등을 이유로 2020년 동방경제포럼의 취소를 발표했다. 2015년 이래 매년 치러 오던 이 포럼은 올해 처음 취소되었다. RUS Congress는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동방 경제포럼 준비 및 개최에 관한 조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2020년 포럼이 취소되었다” 고 밝혔다. 6회 동방경제 포럼은 2021년 9월에 개최 예정이다.

### □ 북 중 러 잇는 화물철도 시범 운행<sup>15)</sup>

중국 지린성의 동북아 해상실크로드 해운회사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 업체가 조직한 컨테이너 6개를 실은 열차가 지난달 26일 오후 지린성 훈춘(琿春)을 출발해 한 시간 뒤 러시아 극동의 한 기차역에 도착한 뒤 하산의 지선 노선을 거쳐 29일 오후 북한 두만강역에 이르렀다. 이 업체는 시범 운행이 “러시아 국가철도 모스크바 본사와 북한 국가철도부처의 적극적인 지원·지도 아래 이뤄졌다” 면서 “화물의 해외 운송 거리를 최대로 단축했다. 또 운송 효율을 높이고 물류비용을 낮추는 데 큰 영향을 줬다” 고 평가했다.

### □ 러시아, 버스 등 우측핸들 차량 수입 금지<sup>16)</sup>

러시아가 1일부터 핸들이 우측에 있는 차량 수입을 금지했다. 러시아 연방 관세청은 우측핸들 차량의 수입에 대한 새로운 제한이 이날부터 발효된다고 발표했다. 수입이 금지되는 우측핸들 차종은 승객 수송용 버스와 밴, 건설장비 등이다. 차량 통관절차도 복잡해진다. 우측핸들을 사용하는 국가는 일본, 인도, 홍콩, 태국,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영국, 아일랜드, 호주, 뉴질랜드,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이다.

### □ 러시아, 보스토치니항 화물 회전율 6% 증가<sup>17)</sup>

러시아보스토치니 항은 첨단 석탄 환적 시설을 보유한 러시아 최대의 전문 터미널이다. 2020년 상반기 1,380만톤의 고품질 석탄 제품을 수출용으로 보냈다. 전년 상반기보다 6% 증가하였다. 올해 상반기 동안 275척의 화물을 소화 하였으며 대부분의 제품은 일본으로 선적 되었다. 이는 전체의 29.5%를 차지했다. 석탄 처리 산업단지 3단계 시설의 시운전으로 인해 터미널의 총 처리량이 연간 5천만~5천5백만 증가 하였으며 보스토치니 항은 러시아 최대 석탄 전문 항구가 되었다.

### □ 바이오 연료의 첫 시험 배치는 일본, 일본으로 수출<sup>18)</sup>

일본 회사 EREX co.,ltd 는 친환경 발전소의 연료 공급을 위해 극동 연료생산업체 VTK 그룹으로부터 바이오 연료의 시험 배치를 위해 구입했다. EREX co.,ltd 회사는 매년 친환경 연료로 간주되는 분쇄 목재 펠릿과 연료를 최대 2백만 톤까지 구매할 계획이다. 이제 극동지역의 연료 펠릿 생산량은 러시아 전체의 10.6%를 차지한다.

13) <https://www.dv.kp.ru/daily/27145.5/4239361/>

14) 동방경제포럼 주최 측

15)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104319>

16) <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3378780>

17) <https://rg.ru/2020/07/08/reg-dfo/ao-vostochnyj-port-v-pervom-polugodii-velichilo-gruzooborot-na-6.html>

18) <https://minvr.ru/press-center/news/26568/>

## | 일본 주요 동향 |

### □ 일본 경제의 20%를 차지하는 간사이 지역<sup>19)</sup>의 최근 무역동향<sup>20)</sup>

일본의 5월 수입액은 469억3천만 달러로 13개월 연속으로 감소해 전년 동월 대비 26.2% 감소했다. 한편 간사이 지역의 수입액은 94억5천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9.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대한민국 수입액을 살펴보면 5월 수입액은 18억8천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27.1% 감소했다. 간사이 지역의 대한민국 수입액은 3억8천만 달러이며, 18.5% 감소해 전체 감소율에 비해서는 소폭 감소했다.

간사이 지역의 5월 대한민국 수입증가 품목은 스마트폰 등의 통신기, 가정용 전기기기, 비금속광물제품, 무기화학물, 반도체 등 제조장치 등이 증가세를 보였다. 감소 품목은 철강, 플라스틱, 금속제품 등으로 나타났다.

### □ 일본 석탄화력 100기, 발전용 석탄 전용선 60~70척 등 단계적으로 감소<sup>21)</sup>

일본 경제산업성이 2030년도까지 선탄화력 발전소 100기 정도를 휴·폐지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발전용 석탄 전용선 또한 향후 10년간 6~70척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감소할 예정이다. 2030년까지 휴·폐지되는 구형 화력 발전소는 일본 전체의 70%에 해당된다. 여기에는 소규모 발전소도 포함되어 있다.

세계적인 온난화 가스(GHG) 감축 추세로 석탄 화력의 신설은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중국전력의 미스미 2호기(시마네현)과 JERA의 타케토요 5호기(아이치현) 등 신설 계획이 진행중에 있지만, 차후 신규 프로젝트는 장벽이 높아질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해운 대기업 임원은 “경제성과 지정학적 리스크를 포함한 에너지 안정 공급의 관점에서 석탄 화력은 계속 기반 전원으로서 일정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다만, 신재생 에너지를 비롯한 에너지 전환은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 □ 교토 마이즈루항 항만 정비 민간협의회 설립<sup>22)</sup>

일본 교토부는 마이즈루항의 이용 촉진을 위해 지난 7일 「교토 마이즈루항 진흥 촉진 협의회 설립총회」를 개최하였다. 동 협의회는 항만의 이용 촉진과 더불어 교토부 북부와 간사이 경제권 발전을 위한 항만 정비 및 방향성 등을 지자체와 현지 진출 기업 등과 함께 논의하였다.



교토 마이즈루항 진흥 촉진 협의회 설립 총회

19) 대상 지역: 후쿠이현, 시가현, 교토부, 오사카부, 효고현, 나라현, 와키야마현






20) <http://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3/globalBbsDataView.do?setIdx=242&dataIdx=183217>

21) <https://www.jmd.co.jp/article.php?no=258627>

22) <https://www.jmd.co.jp/article.php?no=258804>

# 용어사전

## | 선박의 종류 |

구분	항만물동량	사진
컨테이너선	▶ 규격형의 상자인 컨테이너에 화물을 넣고 그것을 적하물로 하여 상하역의 편의성 및 시간 단축에 용이하며 날씨에 큰 구애를 받지 않는다. 정박 기간의 단축으로 수송 능력이 높아짐은 물론 도난 예방, 육상운송으로 직결 가능한 수송력 증대를 가져왔다.	
벌크선 (산물선)	▶ 곡물이나 광석과 같이 포장되지 않은 산적화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선박. 수송하는 화물의 종류에 따라 특정 화물만 운송하는 전용 화물선과 다양한 산적화물을 운송하는 겸용선으로 구분된다.	
Ro-Ro선 (Roll on-Roll off)	▶ 화물을 적재한 트럭이나 트레일러, 일반 차량 등을 수송하는 화물선으로, 별도의 크레인을 이용하지 않고 차량들이 자가 동력으로 직접 승,하선할 수 있는 선박이다.	
유조선	▶ 선체에 설비한 탱크 안에 석유를 넣어서 운반하는 선박으로 컨테이너선하고 구조만 다르다. 원유 운반선, 셔틀탱커, 정유 운반선 등으로 나뉜다.	
여객선	▶ 정기항로를 운항하는 페리와 부정기적으로 항해하는 크루즈 선으로 나뉜다. 순수하게 여객만을 운송하는 여객선도 있으나 화물과 여객을 동시에 수송할 수 있도록 건조된 선박이 많다. 자동차를 동시에 수송하는 카페리등이 여객선에 포함된다.	
피더선	▶ 대형 컨테이너 선박(모선)이 기항하는 중추항항만과 인근 중소형 항만 간 컨테이너를 수송하는 중소형 선박.	

사진출처 : wikipedia

## | (재)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 월간동향 만족도 조사 |

안녕하십니까.

본 조사는 (재)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 제공 중인 “월간동향”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입니다.

우리 센터에서는 주기적(월 1회)으로 북방물류, 강원권 물류 등의 동향을 파악하여 관련 분야 종사자분들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고객만족도 조사를 시행하오니 구독자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설문조사는 <https://forms.gle/ZkQC7UiqQYoNkQMp6> 또는 오른쪽의 QR코드를 통해 참여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7.



(재)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  
담당 : 물류연구기획팀  
☎ : 033-522-6503